

4.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 시행의 영향 점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류창훈, 박다연)

1. 정부는 차주의 금융 선택권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가계대출의 대환 프로그램(대환대출 인프라¹⁾)을 운영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다가 금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아파트)(1.9일 도입)과 전세대출(1.31일 도입)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2. 그간 동 프로그램을 통한 대환대출 규모는 은행 신규취급액의 10% 내외 수준으로 대부분 은행 간 이동이었다. 대출종류별 월평균 대환규모²⁾는 신용대출 3,625억원, 주담대 9,777억원으로 은행 대출 신규취급액(23년중 월평균)의 각각 10.6%, 8.6% 수준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간 대환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모두 90%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월 중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신규취급액 증가율(87.9%, 전월대비)이 5대 은행(11.4%)보다 크게 높았던 점에 비추어 인터넷전문은행으로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은행들은 1월 들어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주담대 등으로 확대된 데 대응하여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가계대출금리가 상당한 하락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환대출 프로그램 확대 시행에 맞추어 금리를 낮춘 주담대 대환대출 전용 상품(3.4~3.6% 내외)을 출시하였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취급된 주담대 규모는 아직은 크지 않지만 일부 은행이 기존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 하락에는 작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월 중 가계대출금리의 하락을 요인별로 구분해 보면, 지표금리보다는 가산금리 하락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가산금리 인하의 영향이 지표금리 변동보다 2배 이상 컸던 것으로 나타나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대출비교플랫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대출이동시스템(대환대출 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환대출 프로그램 도입 이후 금년 2월 7일까지의 실적으로 신규 대출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하여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거래 기준이다.

한편, 개별차주 입장에서는 기존 고금리 대출이 대체로 3% 중·후반의 신규 대출로 대체되면서 대출금리가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대환대출 프로그램 확대 시행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업권 간 잔액 변동도 제한적이었다. 1월 중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된 주담대의 상환액과 신규취급액이 대체로 비슷하여 금융권 전체로 볼 때 대출잔액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담대를 대환하는 경우 새로운 대출한도가 기존 대출의 잔여금액 이내로 제한³⁾된 데 주로 기인한다. 업권별 이동을 보면 비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주담대 대환으로 비은행 잔액이 감소하고 은행은 증가하였으나 그 규모는 소폭에 그쳤다.

5. 향후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주담대 대환⁴⁾이 지속되고 전세대출 대환도 본격화될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금리의 하락압력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신용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출시 초기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금리 하락압력은 시행 초기에 크게 나타난 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들이 대환대출 전용 상품뿐 아니라 1월과 같이 일반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의 대출 경쟁이 지속될 경우 가계대출의 금리 하락과 이로 인한 대출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신용대출의 경우 주담대와는 달리 DSR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잔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 금융위에 따르면 2.7일 현재 주담대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신청액 4.2조원 중 1.0조원(23.3%)이 취급되었으며, 전세대출의 경우 6,788억원이 신청되어 662억원(9.8%)이 취급되었다.